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Career Experience Programs in Archives

유혜진(Hyejin You)¹, 김지현(Jihyun Kim)²

E-mail: youhyeppy@ewhain.net, kim.jh@ewha.ac.kr



1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5.07.14
최초심사 2025.07.22
게재확정 2025.08.20

ORCID

Hyejin You
https://orcid.org/0009-0005-4292-2155

Jihyun Kim
https://orcid.org/0000-0003-0209-4365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기록관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내 사례조사,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실무 연계 부족, 결과물 중심의 피상적 체험, 신청 방식의 획일화, 비전문적인 평가, 강사 지원의 미비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직무 중심의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둘째, 프로그램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셋째, 신청·평가 방식 개선 및 강사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존기록관이 청소년 진로교육과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in archives as educational tools for to enhance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and exposure to careers in records management. Using a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of Korean program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coordinators and instructors,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program operations. The analysis identifie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insufficient linkages to actual job tasks, outcome-focused and superficial experiences, standardized application processes, nonspecialized evaluation methods, and insufficient instructor suppor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ree areas for improvement: (1) developing job-oriented program content; (2) establishing systems for program sharing and institutional collaboration; and (3) improving application and evaluation methods while strengthening instructor support. These measures aim to enable archives to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youth career education and the promotion of archival culture.

Keywords: 보존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아웃리치 서비스, 진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교육
archives, archivist, outreach service, career experience program, youth career education

1. 서론

1.1 연구 목적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교육 활동으로,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이에 교육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로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에 치우치거나 특정 산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교육부, 2023b), 지역 간 인구 감소 및 교육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진로체험 기회와 지역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직업군은 직무가 이루어지는 실제 공간에 접근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청소년이 직업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보존기록관은 기록을 생산·관리·활용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보존기록관은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진로체험의 현장성 및 몰입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보존기록관은 체험형 교육에 적합한 물리적·운영적 특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공급처로서 잠재력을 지닌다. 기록관리 직무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탱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진로교육 현장에서의 인지도나 체험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보존기록관을 진로체험의 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기록의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과 보존기록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진로교육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기관 중 공적으로 생산·접수된 기록을 선별·평가하여 보존하는 보존기록관(archives)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범위 또한 이러한 보존기록관으로 한정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보존기록관의 교육적 역할,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특성과 유형, 기록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둘째, 국내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에서 ‘기록’,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기록연구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기록 관련 국내기관’ 목록을 검토하여 실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은 경기도 행정역사관(경기도기록관 기록물을 활용한 체험·교육 공간), 경상남도기록원, 국가기록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 문화자료 아카이브를 보유한 교육·전시 복합 공간),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원,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청주기록원으로 총 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5개 기관의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총 8명이

며, 이 중 2명은 운영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었고, 3명은 운영자, 3명은 강사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대면 또는 서면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자 면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두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효과까지를, 운영 측면에서는 자원, 지속 가능성, 기관 간 협력 등과 관련된 총 16개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강사 면담지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실제 경험과 어려움,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 과정을 거쳐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범주화한 뒤 주제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존기록관을 포함한 유관 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사례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Dickson과 Gorzalski(2013)는 고고학 분야에서 직업 체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기록관리 분야의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중심 교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직업체험을 통해 기록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높이고, 기록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박재영(2017)은 국가기록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유형별 내용의 특성화, 강사 역량 강화, 사전 교육 필요성, 학교와의 협업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송나라 외(2017)는 대통령기록관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 인식 및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지윤(2018)은 국가기록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자 협력, 교사와의 소통, 기록 관련 직무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기록관 외 유관기관 중 도서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는 권은경(2017), 노영희와 김혜인(2016), 이재희(201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도서관이 자유학기제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 외부기관과의 협력 미비가 활성화의 주요 제약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로체험 관련 연구로는 김윤희(2019), 김현수(2018), 이연호(2018), 이주연(2016)이 있다. 이들 연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진로 탐색 교육의 장으로서 교육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기록관이나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강경균 외(2019), 박나실 외(2024), 이경아와 김병찬(2024), 정명자(2020)가 있다. 이들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원 부족, 협력체계 미비,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성을 공통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직업 인식 제고와 잠재적 이용자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등 국내 특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을 반영한 최신 현황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원 부족과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한적으로 제시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보존기록관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 주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심층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한 보존기록관에서 적용 가능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보존기록관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2.1 보존기록관의 교육적 역할

보존기록관은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따라 단순 보존 기능을 넘어 기록의 활용을 통한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기록 제공, 전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은 보존기록관의 교육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록문화 확산과 대중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설문원(2008)에 따르면 기록정보서비스는 정보검색·열람, 부가가치, 활용촉진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특히 활용촉진 서비스는 교육 프로그램과 견학,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며, 기록관의 교육적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박재영(2017)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기록관리 직업과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효과적인 교육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 Osborne(1986)과 Robyns(2001)는 기록관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역사적 사고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강주연 외(2015), 김희정(2008)도 기록을 활용한 수업이 사고력 향상과 기록의 가치 인식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백진이와 이해영(2018)은 영국 국가기록원의 사례를 통해 기록관이 학습 콘텐츠 제공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송나라 외(2017)와 장효정(2015)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기록관의 교육적 기능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기록관 및 기록문화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고 기록문화 인식을 높이며, 기록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2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특성과 유형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교육 활동으로,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임병웅(2009)은 진로교육이 자아탐색, 직업세계 이해, 직업관 형성 등을 포괄한다고 보며,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개인의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활동이라 평가하였다.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세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현장 체험, 직업인 멘토링, 강연, 진로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손유미(2001), 정철영 외(2012)는 직업체험이 자기이해와 진로설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보았으며, 정연순 외(2012)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2023b)는 진로체험의 지역 중심 운영을 통해 진로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율적 진로설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3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의의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기록관리 분야를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국내 보존기록관 대부분은 공공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해당 직무나 기록문화의 가치를 체감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기록문화 확산과 직업군 인식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으로 주목받는다(김희

정, 2008; 박재영, 2017; 송나라 외, 2017; 이지윤, 2018).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의의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존기록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진로교육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도 반영된다(교육부 외, 2024).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법적 책무 이행을 넘어, 교육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존기록관은 국가 차원의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4).

둘째,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직업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록은 단순한 정보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투명성, 역사적 증거로서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기록의 역할과 가치를 학생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기록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박재영, 2017; 이지윤, 2018). 이를 통해 보존기록관은 공공기록의 가치와 기록관리 직무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릴 수 있다.

셋째, 보존기록관 진로체험은 미래의 이용자와 후원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체험을 통해 보존기록관이 친숙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존기록관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김희정, 2008; 박재영, 2017).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 기회 제공은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송나라 외, 2017).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록학은 일반 청소년에게 진로로서의 접근성이 낮은 분야이며, 대학에서의 전공 개설도 제한적이다(손지황, 2023). 보존기록관은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록관리 분야를 조기에 접하고, 구체적인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며, 보존기록관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법적 책무 수행, 기록문화 확산, 이용자 확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다면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존기록관이 공공성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청소년 진로교육의 한 축으로 기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존기록관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례 및 현황

3.1 분석 기관 및 면담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존기록관 8곳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표 1>은 그 운영 방식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0월 기준, 교육부의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확인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와 유선 문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대상,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강의, 시설 견학, 만들기 체험 등 유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운영 시간은 1~2시간 내외로 제한적이었다. 운영

방식은 기관 방문형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부 기관은 학교 방문형(경상남도기록원,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청주 기록원) 또는 온라인 병행 운영(국가기록원)을 통해 참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록관리 직무나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는 정보 중심의 구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카이브 기반 실습 및 기록 활용 활동은 일부 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기록연구사 직무와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과 구성 면에서는 유사성이 높고, 체험의 깊이나 다양성은 제한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대체로 표준화된 구조를 따르고 있어, 향후에는 기관의 고유한 성격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 국내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기관명	대상	운영방식	진행시간	주요내용
경기도행정역사관	초·중·고	기관 방문	60분	진로 강의, 기록관 견학, 직업윤리 논의
경상남도기록원	중·고·대	학교 방문	120분	진로 강의, 수제도장 제작, 장경판전 퍼즐 조립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초·중·고	기관 방문/온라인	90분	진로 강의, 기록관 견학, 보존상자 제작, 질의응답
국가기록원 (대전분원)	중	기관 방문	90분	진로 강의, 기록관 견학, 절첩장·보존상자 제작
국가기록원 (부산분원)	초·중·고	기관 방문	120분	진로 강의, 기록관 견학, 퍼즐·모형·탁본 제작 및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고	기관 방문	90분	진로 강의,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 작성, 진로자료집 제공
대통령기록관	초·중·고	기관 방문	120분	대통령기록 강의, 기록관 견학, 토기·종이 복원 체험
서울기록원	초4~6	기관 방문	120분	전시 및 기록관 견학, 보존처리 체험, 기록카드 작성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초·중	기관 방문/학교 방문	50~90분	진로 강의, 개인 기록 공유, 분류 실습, 수첩 제작
청주기록원	중·고	기관 방문/학교 방문	120분	진로 강의, 기록관 견학, 불펜 제작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5개 기관의 운영자와 강사 총 8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대면 면담은 5명을 대상으로 평균 70분간 실시되었고, 서면 면담은 3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대면 면담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전사 과정에는 클로바 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후 도출된 코드를 기반으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코드체계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면담 대상 기관명과 응답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질문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두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자에게는 프로그램의 기획 목적, 구성 요소, 교육적 효과 및 직업 연계성 등 내용과 관련된 질문과 자원 확보, 홍보 방식, 지속 가능성, 외부 협력, 평가 체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사에게는 강의 준비 및 구성 방식, 자격 요건, 강의 진행 시의 어려움, 기관의 지원 수준 등을 중심으로 운영 현장의 경험과 인식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 외에도 응답자의 진술에 따라 추가 질문을 병행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시 운영자와 강사의 답변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2>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	담당	운영경력	운영횟수	직책	전공
A	운영	3년	8회	학예연구사	예술사
B	운영, 강의	3개월	3회	기록연구사	기록관리학
C	운영	10년	10회	학예연구사	박물관미술관교육
D	운영	3년	24회	학예연구사	박물관학

응답자	담당	운영경력	운영횟수	직책	전공
E	운영, 강의	3개월	14회	기록연구사	역사학
F	강의	7개월	8회	프리랜서	박물관미술관교육
G	강의	1년	6회	프리랜서	언기, 교육학
H	강의	7개월	15회	프리랜서	서양화

3.2. 국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3.2.1. 내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각 기관은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응답 내용은 ‘기관 인식 제고’, ‘기록 가치 확산’, ‘기록관리 직업 홍보’라는 세 가지 하위 코드로 분류되었다. 응답자A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보존기록관이라는 낯선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기록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B는 프로그램을 관람객 유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기관 인식 제고와 관람객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C와 E는 청소년들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기획하였다. D는 학생들이 굳이 우리 기관을 방문할 이유는 무엇일지 고민하며, 보존기록관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진로체험이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록과 기록관리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공통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체험 활동’과 ‘직업과의 연관성’ 두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체험 활동’은 ‘체험 활동의 필요성’, ‘체험 활동 개발의 어려움’, ‘기록 활용의 제약’으로 세분화되었다. 응답자A는 수장고와 같은 기록관리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보았고, E 역시 기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체험 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반면 B는 기록 전시와 체험 활동이 단조로울 수 있으며, 기록의 유일성 때문에 체험 요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C는 기록 원본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나, 자료를 활용한 역사교육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는 추가 기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기록관리 체험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면서도, 기록의 특성상 체험 콘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A는 기록연구사의 역할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 보존, 서비스 등 실제 과정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E는 직업 설명과 기록관 기능 역할을 균형 있게 구성해 기초부터 전문적인 이해까지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든 응답자는 학생들이 기록관리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실물 기록 활용의 제약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기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2.2 운영

3.2.2.1 운영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전담 인력 부족’과 ‘예산 활용의 제약’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응답자A, B, C, E는 인력 부족을 공통된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의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1인 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확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규모보다는 활용의 자율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

되었다. B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과 예산이 일괄 하달되는 구조적 특성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업무 추진의 유연성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C와 E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설령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 반면 A와 D는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모든 응답자가 예산의 대부분이 유지관리 및 체험 교구재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력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산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그 활용에 있어 자율성의 제약이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홍보와 관련된 응답은 ‘공문 발송 및 교육청 협력’, ‘플랫폼 채널 한계’, ‘홍보 채널 다변화 필요성’의 세 가지 코드로 분석되었다. 응답자A와 C는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카카오톡, 밴드, 블로그 등 비공식 SNS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집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식적인 학교 교사 등 핵심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응답자C와 D는 기존 참가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개별 학교에 자료를 발송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전달받아 각급 학교로 전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B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진흥재단 등에 프로그램을 등록해 홍보하고자 했으나, 자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각 기관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홍보의 효과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 또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인지도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 전략과 함께, 플랫폼 다변화와 네트워크 확장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면담 결과는 ‘다회성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와의 협조’라는 두 가지 코드로 분석되었다. 응답자A는 다회성 프로그램이 기관 입장에서 안정적인 참여자 확보와 강사 활동의 연속성에 긍정적이지만, 학교 측의 협조와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B는 흥미 있는 체험 요소와 주기적인 콘텐츠 갱신,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며, 유희성 체험 위주의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C는 교사들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반복 참여가 드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속하려면 신청 과정의 협조뿐만 아니라 매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관 간 협력 및 운영 지원 체계, 장소나 강사 파견 등 현실적인 제약도 지속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는 단발성 운영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과 체험 활동을 주기적으로 재구성하고, 기획 의도에 맞춘 새로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콘텐츠 다양화, 다회성 구성, 학교와의 협조, 기관 간 협력 등의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흥미 요소와 기획의도에 대한 충실한 설계가 참여 지속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외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협력 부족’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A, B, C, E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육청과의 연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응답자 A와 D는 지자체와의 부분적인 협력 사례를 언급하였다. A는 지역 교육 부서(어린이·청소년 교육과)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가능성을 타진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D는 복지관이나 청소년 담당 부서가 단체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도 제한적이며, 실질적 협력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중개자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외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학생 대상 평가의 신뢰성 문제’, ‘교사 대상 평가의 중요성’, ‘외부 평가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코드로 분석되었다. 모든 응답자는 참가자(학생)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A, C, E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참여자의 실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신뢰성이 낮아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A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내부평가 외에도 외부 평가가 병행될 경우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보았다. 특히 외부 의견 수렴이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평가나 외부 피드백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B와 D는 학생 평가보다는 교사의 의견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자료라고 보았으며, 교사 대상 평가가 프로그램 개선에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다만, 교사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설문 응답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되었다. D는 또한 ‘꿈길’ 플랫폼에 등록된 교사 후기를 참고해 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프로그램 평가는 형식적 만족도 조사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 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교사 평가의 중요성과 외부 평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보다 다층적인 평가 체계와 외부 피드백 구조의 정비가 요구된다.

3.2.2.2 강사

강사의 자격과 확보 과정이 프로그램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강의를 담당한 응답자(B, E, F, G, H)와 일부 운영자에게 강사 섭외 방식 및 자격 요건을 질의하였다. 운영자 중 A는 기관 차원의 강사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어 섭외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C와 D는 주로 지인 소개 등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섭외하고 있으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강사의 자격에 대한 응답은 ‘전문성’, ‘교육적 역량’, ‘책임감’의 세 가지 코드로 도출되었다. 응답자B와 F는 기록 관리 및 수장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는 직업적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E와 F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목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적 해석 능력을 중시하였으며, G는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과 수업 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중요한 자질로 언급하였다. H는 강의 전반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함께 학생, 교사, 동료와의 신뢰 형성이 강의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강사의 자질로는 전문성(B, F), 교육적 역량(E, F, G), 책임감(H)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강의의 질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강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관련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강사들에게 질의한 결과, 운영도 함께 담당한 응답자B, E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사들은 예산 문제는 강사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인력과 관련해서도 기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답하였다.

강의 진행 과정에서의 중점 요소, 어려움, 준비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강사들에게 질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강의 목표 및 중점 요소와 관련하여 도출된 코드는 ‘긍정적 경험 제공’, ‘프로그램 목적과 의도 설정’, ‘대상 맞춤형 설계’, ‘체험자료의 적합성’이었다. 응답자B와 G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자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E는 프로그램의 기획 목적과 전달 메시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F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며 사용 가능한 기록을 선별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였고, H는 학생들이 생소한 직업을 간접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사들이 각기 다른 기관과 상황에 맞추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의 진행에서의 어려움은 네 가지 주요 코드로 정리되었다. 첫째, 응답자H와 F는 시간적 제약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제한된 수업 시간과 도착 지연으로 인해 체험 시간이 축소되는 것이 전문적인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하였다. 둘째, E는 직업 주제의 생소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과 질문이 적고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사의 추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교육 환경 및 소통 제약도 지적되었는데, B는 이동 중 안전 문제가, F는 지역 및 시설 조건, 수업 형태에 따라 소통의 질이 달라지는 점을 언급하였다. 넷째, 참여자의 기대와 요구 충족의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F는 학생들이 체험의 결과물에 관심을 보이며 직업 탐색보다는 단순한 체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로체험의 본래 취지와 다소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방식과 관련해 모든 강사들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추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라도 발문 방식이나 용어를 교육 대상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강의 내용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강사들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강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기관과의 평가 결과 공유 및 소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결과, ‘평가 결과 공유의 부재’와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이라는 두 가지 코드가 도출되었다. 응답자F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평가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았다. E는 생소한 직업군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질문이 적고 반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모든 강사 응답자들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 강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F, G, H는 모두 강사로서 프로그램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H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한편, 기관과의 소통 관련하여 모든 응답자는 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강사들은 학생들의 참여와 만족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관과의 소통 또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강사들이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해 피드백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강사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이나 관련 주체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관의 자료 제공 및 협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체험 기회 제공’, ‘기획 단계와 준비의 중요성’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일부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E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F는 기록관의 소장 자료 및 학습 공간 지원, 그리고 직업 관련 질문에 대비한 전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B, G, H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특히 G와 H는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대본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강사들은 교육적 효과와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전 기획과 체계적 준비가 잘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도 안정적인 강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종합분석

운영자 면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적 여건과 지속 가능성, 대외 협력, 평가 체계의 현실에 대한 운영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자원 측면에서는 대다수 기관이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인력적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하달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용이 어려워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홍보의 경우, 공문 발송과 교육청 협조를 통한 공식적 채널 외에도 SNS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학교 교사나 진로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청소년 진흥시설 등록 등 대안이

논의되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지속가능성 항목에서는 다회성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반복 참여를 기피하는 학교 측 분위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요구하는 현실, 강사 파견 및 장소 이동의 어려움 등이 운영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협력 측면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나 교육청과의 실질적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응답자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와의 연계는 시도되고 있었으나, 단발적·중개적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항목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방식과 학생 응답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외부 평가 도입 및 교사 평가 반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강사 면담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요건과 현장 실행의 실제적 어려움, 운영기관과의 소통, 필요한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먼저, 자격 측면에서 강사들은 기록관리 분야의 직업적 전문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적 역량, 그리고 강의에 임하는 책임감을 핵심 자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원 항목에서는 운영을 껴하지 않는 강사들은 인력과 예산과 같은 자원 문제는 기관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어 강의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진행에 있어 강사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전달, 대상 맞춤형 설계, 적합한 체험자료 선정을 핵심으로 보았으며, 학생에게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 제약, 생소한 주제, 소통 환경의 제약, 결과물 중심의 참여자 기대 등은 강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체험활동을 ‘만들기’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넷째, 평가에 관해서는 강사 대부분이 학생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기관과의 소통도 원활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강사는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원 항목에서는 레크리에이션 교육, 전문성 향상 교육, 타 프로그램 참관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일부 강사들은 철저한 사전 기획과 대본 기반 운영만으로도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는 체계적 사전 준비가 강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록관리 직업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탐색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층 면담과 사례 분석 결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만들기 중심의 체험에 편중되어 있어 직업의 본질과 실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과 구조 전반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개선방안

4.1.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 내용 개발

현재 다수의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만들기 중심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는 체험의 흥미 유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심층면담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며 진로교육 본래의 목적과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예산 역시 대부분 교구재 및 유지관리비에 집중되어 있어, 체험 활동의 질적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체험 활동의 다양성과 실질성을 저해하며, 직업에 대한 오해나 단편적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만들기 중심 활동을 기록관리 직무와 실질적으로 연계된 내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적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 견학을 넘어, 기록관리 직무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프로그램 개선에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의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은 만 14~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이 원본 문서의 생산·반환, 문서 이동 기록·추적, 열람실 고객 응대, 문서 보존 기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직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The National Archives, n.d.). 또 다른 영국 사례로 크로이던 아카이브(Croydon Archive)의 Young Archivists 프로그램은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개월간 운영되며, 기록 수집, 분류, 디지털화 등 기록관리 실습과 함께 전시 및 디지털 콘텐츠 기획 활동이 병행된다. 단순 보조가 아닌 실제 업무 참여를 통해 기록의 사회적 의미를 체득하게 한다(Croydon Archive, n.d.). 영국 콘월주 아카이브(Cornwall archive)는 Year 10(14~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일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목록화, 디지털화, 보존처리, 유산 조사 등 다양한 기록 관련 실무를 매일 다른 부서와 협력하며 경험하게 한다. 담당 직원이 전 과정을 지원해 체계적인 실무 학습이 가능하다(Cornwall archive, n.d.). 네덜란드의 리비에를란트 지역 기록관(Regionaal Archief Rivierenland)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자원봉사형 인턴십 Maatschappelijke Stage를 운영하며 기록 분석, 디지털화, 색인 작업 등 실질적인 기록관리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록의 역할과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Regionaal Archief Rivierenland, n.d.).

또한 국내 도서관에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보존기록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교육부 인증 진로체험기관(교육부, 2023a) 중 프로그램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도서관 4곳(전라남도 교육청 보성도서관, 전라남도교육청 무안도서관, 범어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견학 및 사서 직업 소개, 실습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십진분류법 실습, 자료 정리, 대출·반납 체험 등은 사서 직무의 흐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는 보존기록관 역시 직무 중심 체험, 즉 기록 분류, 디지털화, 자료 정리와 같은 기록관리의 실제 업무를 체험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의 핵심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결과물 중심의 표면적 체험을 넘어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기록관리 직업군에 대한 인식 확산과 미래 인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공유와 협력 촉진

4.2.1 프로그램 공유 체계 마련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예산, 인력, 콘텐츠 개발 역량의 차이로 질적 편차가 크고, 개별 기관의 운영 부담도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우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각 기관이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된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기록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공개 제약이 사전에 해결된 콘텐츠를 공유하면 활용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강사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일관성과 교육 효과 향상에도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공공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한 국내 사례도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지역기관 공동 기획

프로그램'(교육부 외, 2021)은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사례이며,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콘텐츠 사례(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12)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업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 후, 교사용 안내서와 동영상 자료 등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전국에 무료로 배포한 사례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 사람들' 프로그램은 키트를 제작·배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제약 없이 콘텐츠를 확산했다(국립현대미술관, 발행년불명). 이러한 사례들은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공유 체계 설계와 운영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심층면담시 운영자들은 소속 기관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타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공유 체계가 현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궁극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2 학교와의 협력

현장 체험은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나, 심층면담 결과로 확인하였듯, 학교와 학부모는 안전과 민원 문제로 기관 방문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학부모회 협력이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학교와 상호작용하며,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주영호, 2020) 학부모회는 교육적, 비교육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고 사전 설명회를 통해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취지를 안내하면 민원을 예방하고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 체계 안내 강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콘월주 아카이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기관이 학생 체험 활동 전용 보험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학부모와 학교에 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기관 방문 체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다(Cornwall archive, n.d). 보험 보장 내역과 사고 대응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내자료나 설명회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학교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은 기관과 학생이 모두 선호하는 방문형 체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며, 학생들에게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3 운영 및 지원 체계 강화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신청, 평가, 강사 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신청 체계는 대부분 학급 단위로 운영되어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평가는 단순 만족도 조사에 그쳐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강사와 멘토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4.3.1 신청 체계의 변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 방식은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주로 학급 단위 운영에 기반하고 있어, 기록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개별적 참여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에 적합한 맞춤형 체험 기회 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청 플랫폼인 '꿈길'은 프로그램 홍보에는 유용하나 실질적인 신청 창구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단위 신청과 더불어

개인 신청을 허용하는 유연한 체계를 도입하고, 꿈길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제공과 신청 접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외부 평가의 도입과 질적 평가로의 전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평가는 현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평가는 흥미 중심의 응답 경향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면, 교사는 학생의 참여 태도와 진로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주체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평가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기록관리 직업에 대한 이해도, 체험 활동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에서는 질적 성과 중심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은 진로교육 평가가 주로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학교 현장의 질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율 같은 수치적 성과뿐 아니라, 진로 인식 변화와 학습 과정의 성장 등 질적 성과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 평가를 포함한 질적 평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강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3.3 강사 지원 체계 강화

강사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력으로서, 교육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의 관심 유도과 진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교육부 외, 2024)에서 제시한 진로체험 담당자, 멘토, 강사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 명의 인력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진로체험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멘토는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강사는 외부 강사나 체험처 내 직원을 포함하며,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를 담당한다. 특히 기록연구사의 멘토 참여가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멘토 부재로 인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강사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타 기관 우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기관이 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강사와 멘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기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마련함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존기록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기록관리의 공적 가치와 직무 특성을 청소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보존기록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이 만들기 체험이나 퀴즈 활동 등 결과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록관리 직무와의 연계가 약하고, 실제 업무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신청 방식은 주로 '꿈길' 플랫폼을 통한 학교 단체 신청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접근성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운영기관 간 연계나 자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기관별 기획 부담이 지속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넷째,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피드백 체계가 부재하며, 강사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록물 정리, 분류, 평가, 이관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직무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기록물을 활용한 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동 개발·활용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장해야 한다. 넷째, 현재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평가는 학생 만족도 중심의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교사 평가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질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이는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보다 실질적이고 교육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사와 멘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더욱 풍부하고 체계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보존기록관이 진로체험을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고 기록관리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이해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보존기록관의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책임 강화는 물론, 미래 세대의 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균, 성윤숙, 김승보, 장현진 (20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강주연, 남연화, 노형관, 김용 (2015).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029>
- 경상남도기록원 (2024. 8. 7.). 알아두면 쓸데 있는, 기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 "찾아가는 진로특강" 운영. 출처: <https://archives.gyeongnam.go.kr/00061/00062.web?gcode=1001&idx=2232&amode=view&sstring=%EC%A7%84%EB%A1%9C&stype=title&cpage=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2022년도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집.
- 교육부 (2023a. 12. 4.).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286&lev=0&m=0204>
- 교육부 (2023b). 진로교육활성화방안(2023~2027).
- 교육부 (발행년불명a). 기록연구사 진로체험 경기도행정역사관. 꿈길. 출처: <https://www.ggoomgil.go.kr/front/exp/infraMapInfo.do?programSeq=439543>
- 교육부 (발행년불명b). 꿈길. 출처: <https://www.ggoomgil.go.kr>

-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4). 공공기관/민간 체험처용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 서울: 진한엠앤비.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2021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운영 사례집.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진로교육법령 해설자료.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수준[학교급]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북.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국가기록포털. 출처: <https://www.archives.g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행년불명).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 출처:
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6921
- 국립현대미술관 (발행년불명). [대여] 2023 청소년 진로연계 <미술관 사람들>. 출처:
<https://www.mmca.go.kr/educations/educationsDetail.do?eduId=202304040000236>
- 권은경 (2017).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49-76.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49>
- 김윤희 (2019). 역사박물관 자유학기-년제 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현수 (2018).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을 위한 박물관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희정 (200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7-43.
<https://doi.org/10.14404/JKSARM.2008.8.1.02>
- 노영희, 김혜인 (2016).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93-122.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93>
- 대통령기록관 (발행년불명). 전시견학. 출처: <https://www.pa.go.kr/portal/introduce/visit/experienceInfo.do>
- 박나실, 신원규, 박초롱 (2024).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3), 283-302.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3.283>
- 박재영 (2017).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백진이, 이해영 (2018).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49-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49>
- 서울기록원 (발행년불명). "기록물 보존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서울기록원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출처:
<https://archives.seoul.go.kr/exhibitions-programs/programs/4400>
-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발행년불명).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청소년 배움프로그램 <오픈! 아트아카이브>. 출처: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ject/view.do?proSeq=81&proType=001&menuId=15&pageIndex=1>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IN), 3, 11-19.
- 손유미 (2001). 중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진로교육연구, 14, 41-65.
- 손지황 (2023). 미임용 기록학 석사 졸업생의 진로선택과 임용준비 어려움 극복과정.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89-132. <https://doi.org/10.20923/kjas.2017.51.089>
- 이경아, 김병찬 (2024). 지자체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정 질적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8), 507-527.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8.507>
- 이연호 (2018).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미술관·박물관과 학교 연계 미술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재희 (2016). 공공도서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82, 86-105.

- 이주연 (2016). PBL에 의한 초등대상 박물관 진로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이지운 (2018). 국가기록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임병용 (200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개선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1), 171-195.
- 장효정, 송나라, 최효영, 김용 (2015). 집단탐구(GI)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대통령 기록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51-8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3.051>
- 정명자 (202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실무자의 운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2), 2235-2250. <http://doi.org/10.22143/HSS21.11.2.158>
-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서정화 (2012). 지역사회 기반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1(1), 217-240.
-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 (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1-17.
- 주영효 (2020).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7(4), 57-86. <https://doi.org/10.52183/KSPE.2020.27.4.57>
- 진로교육법. 법률 제18298호.
- 청주시 (발행년불명). 청주기록원. 출처: <https://www.cheongju.go.kr/archives/index.do>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학교 진로체험 질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ornwall Archives (n.d.). Year 10 Work Experience. Available: <https://kresenkernow.org/about-us/volunteering/work-experience/>
- Croydon Archive (n.d.). Museum of Croydon and Croydon Archives Website. Available: <https://museumofcroydon.com>
- Dickson, E. & Gorzalski, M. (2013). More than Primary Sources: Teaching about the Archival Profession as a Method of K-12 Outreach. Archival Issues, 35(1), 7-19. <https://doi.org/10.31274/archivalissues.10989>
- Osborne, K. (1986). Archives in the Classroom. Archivaria, 23, 16-40.
- Regionaal Archief Rivierenland (n.d.). Middelbaar onderwijs. Available: <https://regionaalarchiefrivierenland.nl/middelbaar-onderwijs>
- Robyns, M. C. (2001). The archivist as educator: Integrating critical thinking skills into historical research methods instruction. The American Archivist, 64(2), 363-384. <http://doi.org/10.17723/aarc.64.2.q4742x2324j10457>
- The National Archives (UK) (n.d.). Work experience. Available: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students/archive-experiences/work-experience-at-the-national-archiv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n.d.). Youth learning program <Open! Art Archive>. Available: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ject/view.do?proSeq=81&proType=001&menuId=15&pageIndex=1>
- Career Education Act, Act No. 18298.
- Cheongju City (n.d.). Cheongju Archives. Available: <https://www.cheongju.go.kr/archives/index.do>
- Chung, Yon soon, Go, Jae-sung, Kang, Ohk hee, & Suh, Jung hwa (2012).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work experience program for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217-240.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ct No. 19740.
- Gang, Ju yeon, Nam, Yeon hwa, Roh, Hyoung kwan, & Kim, Yong (2015).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 using 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based on PBL model: Focused on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2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029>
- Gyeongnam Archives (2024, August 7). Work that makes records valuable - Operation of "Visiting Career Special Lecture". Available:
<https://archives.gyeongnam.go.kr/00061/00062.web?gcode=1001&idx=2232&amode=view&sstring=%EC%A7%84%EB%A1%9C&stype=title&cpage=1>
- Jang, Hyo-jeong, Song, Na-ra, Choi, Hyo-young, & Kim, Yong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experience education model based on GI cooperative learning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51-8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3.051>
- Joo, Young hyeo (2020). An analysis on the policy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schooling. *The Politics of Education*, 27(4), 57-86. <https://doi.org/10.52183/KSPE.2020.27.4.57>
- Jung, Myoungja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perating Experience of Career Vocational Support Cen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2235-2250. <http://doi.org/10.22143/HSS21.11.2.158>
- Jyung, Chul-young, Kim, Bong-whan, Song, Byeong-kug, Choi, Dong-son, Lee, Jong-bum, Kim, Eun-seok, Joo, Hong-seok, & Kim, Bo-kyung (2012). The effect of vocation experience activ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cademic motive, creativity and socia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17.
- Kang, Kyung gyun, Sung, Yoon sook, Kim, Seung bo, & Jang, Hyun jin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Measure for Career Experience Support System of Youth Institutions (Research report 19-R0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Hee jung (2008). A study on educational services of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27-43. <https://doi.org/10.14404/JKSARM.2008.8.1.027>
- Kim, Hyun soo (2018). Development research on museum job experience program for career education of free semester system: Focused on middle school.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Korea.
- Kim, Yoon hee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 of free semester and learning year system in historical museum.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Korea.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9). A research on the method of improving quality of school career experience.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Kwon, Eun-kyung (2017). A study on effective counterplan of library to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49-76.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49>
- Lee, Ji yoon (2018). Current conditions of operation and activation plan for course experience program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Ju yeon (2016). A case study of PBL-based museum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Kyung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 Lee, Kyoung a & Kim, Byeong han (2024). Local government office career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process: Focusing on career experience fai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4(8), 507-527.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8.507>
- Lee, Yeon ho (2018). Plan for school-linked museum art education utilizing a free semester system. Master's Thesis,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Lim, Byeong ung (2009). The improvement plan of course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about the course & voc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34(1), 171-195.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6). *Interpretive guide to the Career Education Act*.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0). *Guidebook for developing career experience programs by school level*.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3). *2023 national survey on career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 Ministry of Education (2023a, December 4). 2,736 certified career experienc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vailabl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286&lev=0&m=0204>
- Ministry of Education (2023b). *Career education revitalization plan (2023-2027)*.
- Ministry of Education (n.d.a). *Career experience of records manager*,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rchives. Goomgil. Available: <https://www.goomgil.go.kr/front/exp/infraMapInfo.do?programSeq=439543>
- Ministry of Education (n.d.b). Goomgil. Available: <https://www.goomgil.go.kr>
- Ministry of Education,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4). *Career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manual fo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providers*. Seoul: JinhanM&B.
- Ministry of Educati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1). *Casebook on career experience programs linked with local communities in 2021*.
-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 *National Archives Portal*.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
-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n.d.). *ACC Bumpy Internship: My Career Onboarding*. Available:
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6921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n.d.). [Loan] 2023 youth career-linked <Museum people>. Available: <https://www.mmca.go.kr/educations/educationsDetail.do?eduId=202304040000236>
-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Best practices in proactive research and public administration: 2022 casebook*.
- Noh, Young hee & Kim, Hye in (2016).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libraries' role by using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93-122.
<https://doi.org/10.16981/kliss.47.4.201612.93>
- Paik, Jin yi & Rieh, Hae young (2018). Archival contents service for education in the UK TN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49-7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49>
- Park, Jae young (2017). *Satisfaction analysis of participants in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for expanding the education service by the Seoul Records Center under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Korea.
- Park, Na shil, Shin, Won kyu, & Kwak, Chol ong (2024). An exploratory research for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4(13), 283-302.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3.283>
- Presidential Archives (n.d.). *Exhibition and Tour*. Available:

<https://www.pa.go.kr/portal/introduce/visit/experienceInfo.do>

Seol, Moon won (2008).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rchive IN*, 3, 11-19.

Seoul Metropolitan Archives (n.d.). "You are now a preservation agent!" Educational program for children at Seoul Archives. Available: <https://archives.seoul.go.kr/exhibitions-programs/programs/4400>

Son, Ji hwang (2023). The process of overcoming career selection and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f unemployed graduate with master's degree in archival stud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Son, Yu mi (200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lan of field experience learning programs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4, 41-65.

Song, Na ra, Lee, Sung min, Kim, Yong, & Oh, Hyo jung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89-132.
<https://doi.org/10.20923/kjas.2017.51.089>

Yi, Jae hee (2016). Analysis of public library programs about adolescent career search: Mainly the case of Bucheon City Wonmi Public Library. *Digital Library*. 82, 86-105.

<부록 1> 심층면담 코드체계

대상	범주	코드	하위코드	
운영자	내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인식 제고 기록 가치 확산 기록관리 직업 홍보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활동의 필요성 체험 활동 개발의 어려움 기록 활용의 제약 직업과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연구사의 역할 강조 직업 연계 강화 	
	운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인력 부족 예산 활용의 제약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 발송 및 교육청 협력 플랫폼 채널 한계 홍보 채널 다변화 필요성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회성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의 협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협력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대상 평가의 신뢰성 문제 교사 대상 평가의 중요성 외부평가의 필요성 		
	강사	운영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교육적 역량 책임감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차원의 충분한 지원
		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목표 및 중점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경험 제공 프로그램 목적과 의도 설정 대상 맞춤형 설계 체험 자료의 적합성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제약 주체의 생소함 교육 환경 및 소통의 제약 참여자의 기대와 요구 충족의 어려움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내용에 따른 준비 대상별 맞춤 조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공유의 부재 기관 간 소통 원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크레이션 교육 기관의 자료 제공 및 협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체험의 기회 제공 기획 단계와 준비의 중요성 		